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강운태 광주시장이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 참석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내무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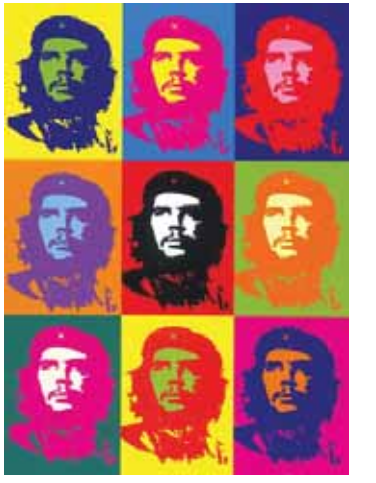
소금박람회 전남 소금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3소금박람회' 개막식에서 박종영(가운데) 전남지사 등이 전남에서 생산한 명품 소금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미술...이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은 '문맹'



(42) 체 게바라

최근 때 아닌, '체 게바라 티셔츠 논쟁'으로 기록적인 폭염 속 여름이 더욱 뜨겁게 느껴졌다. 체 게바라(1928~1967). 그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도 군인용 배레모를 쓰고 무엇인가를 응시하며 굳게 다문 입술의 그 강렬한 사진을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체 게바라의 이...



앤디 워홀 작 '체 게바라'

(1924~ )는 앤디워홀이 평범한 일상적 상품을 특히 비누상자인 '브릴로 상자'를 작품으로 변용해 전시하는 것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 "어째서 이 대상은 미술이고, 슈퍼 마켓의 브릴로 상자는 미술이 아닌가?" 이 물음과 함께 단로는 "미술이 미의 통제를 벗어 버리고 작품 스스로 무엇인가를 몰으면서 철학이 되었다"며 '미술의 종말'을 선언한다.

단로가 고한 '미술의 종말, 이후'. 오늘날의 미술은 다원주의가 특징이 된다.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진 현대미술로 인해 이제 라슬로 모호이 너지(1895~1994)의 말처럼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가 되는 세상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민주당 '모바일 경선' 폐지한다

## 혁신위, '100% 여론조사'도 실시 않기로 ... 국회의원 경선 당원 50%+국민 50%

### 광역총 대의원 30+권리당원 40+당원 10+여론 20%

민주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당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모바일 경선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완전여론조사 경선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조경태 의원)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원 김승남 의원이 28일 전했다.

혁신위는 우선 모바일 경선이 기술적 불안정성으로 직접·비밀투표 등 선거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중장년층의 참여가 어려워 보편적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어렵다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여론을 반영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모바일 경선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당원 중심'의 경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

는 최적의 경선 방식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내 경선 흥행을 위해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하되 현장 직접투표 방식을 통해 선거 열기를 높이기로 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방침은 다음달 초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폭넓은 국민참여를 주장해온 친노(친노 무연) 계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또 지난 27일 회의에서 국회의원 후보 경선 방식을 논의한 결과, '당원 50%, 일반국민 50%'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지난 20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우 '대의원 30%+권리당원 40%+당원 10%+여론조사 20%'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광주일보 22일자 5면>했으나 대의원 비중을 낮

추고 시민 여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말 당지도부 선거, 대통령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선거에서 예비경선(컷오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도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차례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천안을 확정하면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경선부터 적용하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도 그대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내 경선 '불'을 당원·당구 등에 못 박아 경선 직전에야 주요 후보들이 참여해 경선구직을 결정하는 폐단도 고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혁신위가 추천 안에서 일반 민심보다 당원들의 표시에 비중을 크게 두면서 앞으로 지역 내 정치 신인들의 입지 폭이 대폭 줄어들고, 선

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혁신위의 안 대표라면 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모집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을 속출도 우려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정당공천 '의원→단체장' 단계적 폐지"

## "무상급식 실현돼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8일 "정당공천폐지는 1차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하고, 공천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순수한 주민자치정신과 지역발전이 부합할 경우에 한해 그 다음 선거에서 2차로 기초단체장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싱크 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주최한 '지방자치 정착·재정분권 확

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면에서 기초의원·단체장 모두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옳은 방향이지만, 현재 제도 부작용이 너무 심해 한시적으로 공천을 폐지하고 폐지기간 동안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그것이 여러 사정상 어려운 경우는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공천을 폐지하되, 행정구가 존재하는 기초단체에 한해서는 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예

컨대 수원·성남·부천·고양·창원 등이 그렇다. 이들은 모두 행정구가 존재하는 곳이고 인구도 백만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중선거구제 개편 ▲여성정치 참여 보장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2인 중선거구제를 3인 이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기초의원 선거는 3인 또는 4인의 중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이중 적어도 1인은 다른 성(性)으로 선출되도록 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에 긍정적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오늘날 정당이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공직 후보 선정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당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재보선 전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아니다. 지금 10월 재보선이 몇 곳 되지 않을 텐데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부인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양비론'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양비론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후 경기도 의왕 모라중학교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의무교육이 꼭 필요한 것처럼 급식도 의무,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로운 코란도C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NEW 코란도C 더 즐겁게 탄생

Urban Adventure NEW korando C

**NEW코란도C 드라이빙 스킵** ● 일시: 9월 7일~8일 ● 장소: 태백레이크파크 ● 응모기간 및 방법: 8월 7일~8월 25일 / 응모고객 중 추첨

**NEW코란도C와 함께하는 Music Camp** ● 일시: 1차 10월 12일~13일, 2차 10월 19일~20일 ● 장소: 1차 양평 설매재 자연휴양림, 2차 제천 평산오토캠핑장 ● 응모기간 및 방법: 8월 7일~9월 30일 / 뉴 코란도C 출고 고객 중 추첨

\* 자세한 내용은 쌍용자동차 페이스북(www.facebook.com/ssangyongstory) & 홈페이지 참조

**구입문의** ● 광주권: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 971-0990 · 광주중앙 655-4001 · 동광주 515-1900  
 ● 전남권: 순천 745-3666 · 순천중앙 723-7100 · 신여수 654-5522 · 목포중앙 277-8000 · 무안 454-0099 · 화순 371-3555  
 ● 창원 863-2600 · 나주 334-2727 · 강진 433-3100 · 해남 537-3100 · 담양 383-5811 · 장성 395-0007 · 완도 554-4545  
 ● 영광 353-9500 · 고흥 835-5020 · 여천 685-4800 · 보성 852-2892 · 광양 761-8900 · 동광양 791-0071

■ 쌍용자동차와 미래를 함께 할 쌍용가족을 모집합니다  
 - 판매수수료+인센티브+정착지원금 - 매월 판촉활동 지원금 추가지급 - 판매 우수자 해외모터쇼 참가 - [공고/접수] www.smotorecruit.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정권이 바뀌었기에  
대입제도 또 바뀐다.

우리가 실험용 동물(?) 이더냐?!